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은행권, 바젤 I·II 병행산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

-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들의 BIS비율 하락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바젤 II 적용을 의무화 할 경우 중소기업 등의 신용공급 축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
 - 현재 은행권은 영국 등 EU국가에서와 같이 바젤 II 도입 초기에 바젤 I에 의한 BIS비율 산출을 허용한 사례를 참고하여 동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게 1년간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실태평가시 바젤 I·II의 병행산출조치를 시행중임.
- 따라서, 바젤 I·II 병행산출기간을 현행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간에서 2년간으로 1년 연장토록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을 개정할 예정임.
 - 동 조치는 은행 BIS비율 산출기준 변경이 아닌 운영상의 유예조치이므로 국제적 정합성에 해하는 것은 아님.
- 금번 병행산출기간의 연장조치로 국내 은행의 BIS비율 하락 부담이 완화되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공급여력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.
 - 아울러 은행들의 경영실태평가등급 하락 및 적기시정조치 우려 감소로 예금주 등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적인 안정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

(바젤 I·II 병행산출기간 연장, 금융감독원 금융리스크제도실 은행팀, 11/5)